

## 다 같이 버텨 함께 살자



"직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살할까 두려워 옥상폐쇄하는 게  
황의 법칙이냐"  
"회사가 어려워 불가피한 결단이면 노조간부들부터 퇴직해라"

직원들의 분노의 외침이 넘친다. 그러나 분노는 분노일 뿐 개별 면담이  
시작되면 우리는 한 없이 위축된다. 그런 우리 위에 "남으면 업무가  
없어진다", "지방으로 날아간다"는 등 온갖 루머가 융단폭격 된다.



구조조정 발표 후 KT지사들의 옥상이 폐쇄되었다

## 1. 응답하라 2009? 황창규 회장도 결국 다르지 않았다.

지난 2009년 강압적인 관리자의 면담과 더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무너졌고 그래서 나간 사람만 불행했던 게 아니라 남은 우리 모두가, 그리고 KT라는 100년 전통의 회사 자체가 망가졌다. 또 이를 되풀이할 것인가!



### 새로운 황의 법칙은 구조조정?

황창규식 혁신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는 이번 대량 명퇴와 구조조정으로 완전히 물건너 갔다.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을 퇴직 대상으로 만든 회사에서 설혹 살아 남은 자라도 누가 열심히 일하겠는가! 게다가 정작 KT를 망가뜨린 이석채 잔당들에 대해서 징계 혹은 고소는 커녕 이들을 자문으로 대우하기 까지 하면서 직원들에게는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황창규 회장의 리더십을 누가 인정하겠는가!

### 비리와 공포 경영... 왜 노동자만 책임을? 명퇴를 거부하자

그래서 이번 명퇴는 경영진들의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부도덕한 것일 뿐 아니라, KT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석채 비리경영과 공포경영을 통해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직원들의 신망을 완전 상실한 경영진의 말로를 이석채 5년 동안 우리는 똑똑히 경험하지 않았던가! 이번 구조조정과 명퇴 역시 주주들과 경영진 그리고 부도덕한 노조간부만을 위한 것이기에 명퇴조건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 응당 거부해야 한다.



## 2. 팀장, 지사장에게 호소한다... "같이 살길을 찾자!"



면담이 시작됐다. 물론 상당수 지사에서 팀장, 지사장들도 2009년처럼 의욕적인 면담을 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팀장, 지사장들에게 호소한다. 강제적인 면담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한배를 탄 동병상련의 입장이다.

**그리고 만약 본사로부터 명퇴를 강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KT새노조로 관련 증거를 넘겨 달라!**

명퇴 대상자를 회사에서 적시하여 퇴직을 강요하는 행위, 퇴직 실적에 따라 팀장, 지사장을 평가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명퇴 강요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우리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를 요구할 것이다.

## 2009년과는 다른 상황, KT새노조의 존재감을 믿자!

KT새노조가 만들어진 이후 KT 노동인권 문제는 커다란 이슈가 되었고 시민단체,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도 만들어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명퇴 강요"의 증거가 드러난다면 이는 일파만파가 될 것이다. 우리 KT새노조는 이석채 퇴진 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직원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았지만 제보자가 드러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팀장, 지사장들에게 회사와 후배들을 살리고 나도 살겠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즉시 면담을 중단하고 증거 자료를 KT새노조로 넘겨 달라!

"KT새노조가 명퇴강요 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 담당자 : 이해관(새노조 전 위원장)

- 연락처 : 010-3308-8787

(이 전화는 KT 회선이 아니니 안심하고 상담 전화 바랍니다.)

## 3. 복지축소? 업무폐지? 마지막 명퇴? 겁먹지 말고 버티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주저 없이 떠나자!

그러나 남은 회사생활이 두려워 지레 겁먹고 퇴직을 선택할 이유는 전혀 없다. 우리가 이번에 함께 명퇴를 버텨내고, 향후 힘을 모아 KT 새노조를 다수노조로 만들면, 축소된 복지를 회복하고 임금피크제 등도 매우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미래가 두려워 퇴직할 게 아니라, 미래를 새롭게 개척할 용기로 버티면 된다.



이번 명퇴와 함께 영업/개통/AS 등의 업무 폐지가 발표 되었지만, 명퇴자 수가 적으면 대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 설사 지금 말고 있는 업무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KT M&S나 ITS 등 자회사로 강제전출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미 KT의 노동인권 문제가 수차례 국회에서 다뤄진 상황에서, 황창규 회장이 다가올 국정감사에 자신이 소환될 위험을 자초할 생각은 아닐 것이다.

**지금 시기는 단기전이고 급한 것은 회사다!**

24일이 지나면 모든 게 끝난다. 단기전에서 회사는 압도적 조직력을 통해 온갖 유연비어를 돌리고 강압적 면담을 통해 우리의 기를 꺾어 결국은 명퇴를 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번 명퇴 조건이 2년치 급여를 명퇴금으로 주는 것인데, 이는 결국 2016.1.1부터 연장되는 정년(60세)에 대한 회사의 대비책이라는 측면이 더 크다. 따라서 마지막 명퇴라는 말도 직원들의 불안을 조장해 내쫓기 위한 거짓말이 될 것이 분명하다. 급한 것은 회사다. 이번에 우리가 버티면 더 좋은 조건의 특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곳곳에서 개최되는 집회에 참여하자!  
용기가 있다면 새노조로 오라!  
아직 새노조가 미덥지 않다면 어용적 제1노조를 불신임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자!  
불법 행위의 자료가 있다면 새노조로 넘겨 달라!  
직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한탄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24일까지 버티자! 시간은 우리 편이다.



## 〈 KT새노조 가입방법 〉

1. 아래 지역 지회장께 연락하시면 새노조 가입확인서 보내 드립니다.

- 수도권 : 장교순 010 6802 5131  
김미영 010 9932 2002
- 충청북 : 방영식 010 6770 6968
- 전남 : 김상옥 010 9885 9494
- 전북 : 오주현 010 2686 6084
- 기타지역 : 유용국 010 9854 2510

2. 새노조 가입확인서를 KT 지부장에게 제출 하시면 끝!!

3. 다음달 노조회비 자동납부 되는지 확인! 끝!!